

이젠 커플룩을 넘어 패밀리룩 시대

햇살 좋은 봄날의 어느 날, 공원을 돌아다니는데 눈길이 가는 한 가족을 만났다. 세 살배기 아들을 사이에 두고 엄마와 아빠가 양 옆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세 식구가 오손도손 운동화를 맞췄다. 한 눈에 봐도 한 가족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귀여운 아이템이었다. 가족이 다같이 테니스를 치러 갈 때도 패밀리 운동화를 맞춰 신고 가면 참 예쁘겠다. 여기 귀여운 운동화 한번 구경하고 가실래예~

글 | 김현지 기자 사진 | 최태일(스튜디오 UP) 협찬 | 에릭(뉴발란스), 르꼬끄 스포르티브, apr에이전시(아디다스), 피말와이드(아식스)

뉴발란스 574 GS 뉴발란스 신발 중에 가장 기본라인의 운동화다. 키즈용은 운동화 끈 대신 부직포로 되어 있어 훨씬 더 귀엽게 표현됐다. 어떤 옷에도 어울리는 운동화.

뉴발란스 MRL996 FO 뉴발란스를 대표하는 디자인으로 키즈용도 함께 나왔다. 빨간색이 포인트를 줄 수 있어 저렇게 신고 나가면 남들의 부러움을 단번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르꼬끄 스포르티브 다이아몬 남녀공용에 주니어용까지 나온 제품으로 패밀리 운동화로 맞추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색상이 다양해 가족끼리 다른 색상으로 맞춰 포인트를 주기에 좋다. 통기성과 내구성이 좋아 테니스화로도 안성맞춤.



아디다스 퍼포먼스 스프링 블레이드 드라이브2
 이것도 아쉽게 키즈용은 출시되지 않았지만 부분 또는
 커플이 맞춰 신고 테니스 치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밑창이 스프링처럼 되어 있어 지지력이 좋고 탄성이
 좋아 스텝을 내디딜 때마다 에너지를 더해준다.



아디다스 오리지널 ZX FLUX WEAVE
 이번엔 커플 운동화다. 올 시즌 유행하는
 워브 스타일의 모던한 디자인의 운동화다.
 착용감이 좋을 뿐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이
 커플 운동화로 톱날 만한 모델이다.



아식스 G1 워킹화로 젤이 장착돼 있어
 쿠션성이 강화됐고 착화감이 좋다.
 일상에서도 편안하면서도 귀엽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다. 색은 핑크, 블루 외에도
 라임과 민트색이 있어서 맘에 드는 색을
 골라 식구들끼리 매치를 하면 더욱 예쁘게
 신을 수 있다. 특히 키즈용이 매우 귀엽다.